

SAMC | LAW REVISION

1. 코로나19'로 쌓인 재고 면세품 국내 판매 한시 허용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면세점들이 한시적으로 장기 재고 면세품을 국내로 들여와 일반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확산 및 여행객 급감 등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4월 29일 밝혔다.

[Read More](#)

2. 한·중 신속통로 신설 5월 1일부터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

외교부는 한·중 간 필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우리 기업인의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고 4월 29일 밝혔다. 중국정부는 5월 1일부터 교류가 많은 10개 지역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은 경우, 중국과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만 밟으면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를 적용받는다.

[Read More](#)

3. “어려운 관세용어, 알기 쉽게 바꾼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먼저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좀 더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및 고시 상향 입법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CUSTOMS & TRADE TREND

1. EU, 주요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6개월간 면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스크, 수술복, 의약품 등 의료물자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KOTRA 브뤼셀무역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4월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면세정책을 시행했으며, 적용 물품은 마스크, 수술복 등 개인보호장비, 테스트 키트, 산소호흡기, 의약품 등 주요 의료물자다.

[Read More](#)

2. 관세청, 5월 1일부터 '관세 등 징수유예제' 도입

관세청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징수유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회를 더욱 폭넓게 활용해 국민과 기업의 불편·부담 해소와 경제활력 제고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는 기업은 지역별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코로나19 피해사실을 접수·확인받으면,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Read More](#)

3. A.T.A. 까르네 물품 재수출기간 '3개월 연장'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자 A.T.A. 까르네 제도를 활용해 들여온 행사용품 및 상품 견본 등을 정해진 기간 안에 재수출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A.T.A. 까르네 활용 일시 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5월 11일 밝혔다. 재수출기간 연장은 3개월까지로 정했는데, 필요시 재연장함으로써 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할 계획이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FTA TREND

1.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도 원스톱 처리 가능

FTA 원산지관리시스템(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C/O) 기관발급 신청과 출력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FTA KOREA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발급시스템을 연계해 4월 20일부터 기업이 FTA KOREA에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부터 증명서 출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ad More](#)

2.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못 받아도 FTA 특혜 통관 허용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도·방글라데시 등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까지 폐쇄돼 우리 수입기업이 제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우리 수입기업의 피해를 줄이고자 상대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폐쇄에 따른 협정(특혜)관세 적용 절차를 마련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Read More](#)

3. EU, 미국産 수입품에 추가 관세 적용

EU 집행위원회가 5월 8일부터 미국産 라이터(20%), 플라스틱 가구 부품(7%)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 관세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미국産 제품에 대한 EU의 의존도가 높지 않아, 추가 관세로 인해 상품가격이 상승해도 자국 관련 산업 및 소비자가 입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했다. 또한 관세 적용 품목 선정 배경은 EU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금액에 상응하도록 선별해 결정했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SAMC | QUARANTINE & CERTIFICATION TREND

1. 한글라벨 등으로 가려서는 아니되는 항목 구체적으로 명시

소비자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식품 표시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개정 고시안이 행정 예고되었다. 따라서 수입품목 중 한글라벨로 가려서는 안되는 항목에 '원재료명, 해외제조업소명'이 추가되었으며,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다류도 커피처럼 '탈카페인 제품'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식품 특성에 따른 기준이 명시되었다. 식약처는 이같은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 하였다.

[Read More](#)

2. 주류 첨가재료 확대

기획재정부는 주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주류규제 완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제조, 유통, 판매 등 주류 산업 전반의 규제 개선을 통해 맥주 제조 시 질소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첨가재료를 확대 할 예정이며, 주류 판매 시 택배 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소주, 맥주에 대한 대형매장용 용도구분 표시를 폐지하여 희석식 소주, 맥주의 가정용, 대형매장용을 가정용으로 통합할 계획이며,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금년 내 추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3. 온라인 판매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 및 대장균 검출

새싹보리 분말식품 중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위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금속성 이물(숫가루)이나 대장균이 검출되었으며, 그 중 4개 제품은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모두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식약처에 새싹보리 분말 식품에 대한 위생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ad More](#)

관세법인에스에이엠씨(SAMC)는
정직한 관세행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